

2001년 해외석유개발사업 정책방향



김 동 선

〈 산업자원부 자원개발과장 〉

1. 머리말

지난 해 30\$를 넘나든 국제유가 흐름은 수년동안 성장세를 이어온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흐름을 반전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하였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비축유 방출 여부가 핵심이슈로 떠오른 것을 보더라도 고유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유가는 외환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국내경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고유가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해외석유개발은 석유비축과 함께 어느 때보다도 그 필요성이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고유가가 경제 전반에 주름살을 안겨주는 동안, 외환위기 이후 위축되었던 해외석유개발사업은 오히려 호기(好機)를 맞게 된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의 해외석유개발사업이 그러한 호기에 부응하여 과연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자신있게 “Yes”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해외석유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금년초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각종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2. 해외석유개발 현황 및 평가

가. 해외석유개발 추진 현황 및 성과

우리나라는 1981년 인도네시아 마두라 유전개발 참여를 시작으로, 그동안 36개국에서 98개의 해외석유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2000년 6월말 현재 21개국에서 53개 사업(생산 16, 개발 5, 탐사 32)을 진행중이다. 확보가 채매장량은 2000년 6월말 현재 846백만bbl(원유 196, 가스 650)로서 이는 1999년도 원유수입량 874백만bbl의 97%(354일분)에 해당된다.

투자 및 회수실적은 2000년 6월말 현재까지 3,013백만불을 투자하여 74.2%인 2,236백만불을 회수하였으며, 지난해 고유가 흐름에 기인하여 전년동기 대비 회수실적은 118%증가한 192백만불(99.1~6월 88백만불)에 달하였다. 장기적으로 2004년까지 기투자비 대부분은

회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석유개발사업 재원 및 투자

(단위 : US천\$)

구분	'96	'97	'98	'99	'00.6	계
에특용자	437,073	63,011	62,081	71,232	1,503	634,900
자체조달	1,287,180	519,763	241,554	189,744	139,510	2,377,751
계	1,724,253	582,774	303,635	260,976	141,013	3,012,651

지난해에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있다면 한국석유공사와 SK가 탐사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운영권자로 참여한 베트남 15-1 광구가 있다. 동 광구는 우리 기술과 우리 인력을 투입하여 최초로 원유발전에 성공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석유개발사업에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나. 평가

① 해외석유개발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석유의 전략적 가치 및 국가경제 측면에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위기시에는 개발 필요성이 강조되다가 안정기에는 개발에 소극적인 바, 이는 석유개발사업이 수익성 있는 투자사업으로 변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기적 모험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석유개발부문이 1차적인 투자기피대상으로 정리된 것도 이러한 인식 부족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② 우리의 해외석유개발사업은 아직 유치(幼稚)단계로 수익성이 미흡

국내기업의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B/C 분석결과 (1.063) 비용보다 수익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메이저에 비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③ 석유개발산업의 핵심역량인 전문 경영능력과 기술력 부족

높은 수익성과 리스크를 동시에 갖는 석유개발산업에서는 정보와 기술 및 첨단경영기법이 사업 성공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게 되나,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투자효율의 저하 및 사업성공률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낮은 기술개발투자로 외국 메이저사에 비해 기술 경쟁력이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다행히, 탐사·시추 기술은 일정수준에 도달하였으나 독자적인 운영자로서의 능력은 메이저의 50~70% 수준에 불과, 개선의 여지가 많다.

④ 체계적인 사업지원 환경 미흡

현재 해외석유개발사업 지원자금이 주로 「에너지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 의존하고 있는 바, 지원규모도 충분치 않아 사업을 활성화하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현재 국내업체중 석유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석유공사의 경우 사업추진재원 대부분을 에특용자 자기에 의존하고 있어 재투자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의 사업평가능력 부족과 지원체계 불비로 국내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

3. 2001년도 석유개발사업 정책 방향

① 해외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인식 전환 추진

해외석유개발사업은 정부에게는 해외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정책목표 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참여기업에게는 '수익성 높은 매력적인 투자사업'으로 인식되어야만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해외석유개발사업이 유망한 투자사업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기업 최고경영자들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석유개발업체 CEO와의 대화를 갖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는 한편, 참여기업·정부·

연구소 등으로 '해외석유개발협의체'를 구성,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② 대규모 생산광구 매입 및 유망광구 본격개발 추진
 금년중 기개발 대규모 생산광구 매입을 추진함으로써 투자의 현금흐름을 원활히 하고 자주개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매장량을 확인한 베트남 15-1 유전의 본격 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지난해 한국참여를 확정된 이르쿠츠크 가스전 본타당성조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③ 해외석유개발 지원자금의 지속적 확충
 금년 해외석유개발사업 지원예산은 약 1,001억원(용자 997억원, 보조 4억원)으로 지난해 872억원에서 16% 증액되었다. 정부는 해외석유개발에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에특예산 전체의 5% 수준인 해외석유개발 지원예산 비중을 장기적으로 10% 수준으로 제고함으로써 향후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④ 사업지원제도 개선
 현재 50~100% 수준인 탐사 및 개발·생산광구 참여에 대한 용자지원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안 투자위험이 큰 탐사사업 참여에 기여하였던 성공불용자제도와 관련하여 현행 특별부담금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어, 부담 수준을 경감할 방침이다.

한편, 석유공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대출심의회의 사업성평가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성공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⑤ 석유개발 관련 국제협력 강화
 해외석유개발에는 어차피 상대국 정부와의 협력이 절대 요구되는 만큼, 정부는 기업의 해외석유개발 진출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현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 자원외교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5개국과 구성, 운영되고 있는 자원협력위원회를 해당국과의 협력채널로 적극 활용하고 특히 베트남과 자원협력위원회를 신설하여 인근 미얀마를 포함한 인도차이나지역에의 국내기업 진출을 본격화하고자 한다.

자원협력위원회 현황 및 개최계획

대상국가	설치년도	수석대표	개최회수	금년 개최계획(잠정)
인도네시아	1979	산업자원부장관	19	10월, 서울
호주	1980	자원정책실장	17	8월, 서울
러시아	1992	자원정책실장	3	4월, 서울
몽골	1992	자원정책심의관	1	5월, 서울
중국*	1998	자원정책심의관	1	3월, 북경
베트남**	2001	산업자원부차관	-	9월, 미정

*한-중 산업협력위원회 내 에너지자원환경분과위 형태로 운영
 **베트남은 금년 신설 예정

4. 맺음말

올초 산업자원부는 금년 업무추진목표를 '부국선린의 한반도시대 개척'으로 정한 바 있다. 해외석유개발은 '부국'과 '선린'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유망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가 '해외석유개발 공감대 조성의 해'였다면, 금년은 '해외석유개발 활성화의 해'가 될 것으로 믿는다.

해외석유개발사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 있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주고, 의지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아무쪼록 2001년이 해외석유개발사업 활성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 ☺